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과정 탐색*

장승희**

초 록

청소년은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 근무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이 종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활용한 사고방식·태도·행동 및 이들의 전문성 발달과정을 사례분석 방법으로 탐색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의 전문성 함양 방법을 찾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청소년 지원서비스 종사 기간이 10-17년 사이인 3명(남성 1명, 여성 2명), 20년 이상인 여성 2명이다. 학교 밖 청소년기관 팀장, 센터장, 동료 종사자들이 관찰한 이들 중에서,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라고 평가한 이들을 추천받는 지명방법(nomination process)으로 모집하였다. 연구결과는 전문성 구성요소들이 어떤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전해 갔는지 탐색하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대상자 소속 사회의 내·외적 환경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여 생성되는 문제 의식을 지속적으로 갖고, 대처해 가며 자아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 여정에서 보이는 핵심주제로 ① 자아의 확장을 통해 동반성장으로 ② 기관과 청소년의 도움을 받은 종사자 자아의 확장 ③ 종사자 역할의 고민에 대처하는 사고의 전환 ④ 직업정체성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⑤ 조직 환경자원으로 고민하며 성장하는 여정 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자신의 장점을 살려 학교 밖 청소년 활동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는 과정, 즉 대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창출해 내는 창의성이 고민에 대한 대처,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몰입, 사명의 장기적 실천의 기반과 발전 동력이었다.

주요어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 전문성 발달

* 이 논문은 장안대학교 2020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본 저자의 “학교 밖 청소년 복지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과정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 내용 수정·보완되었음.

** 장안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I. 서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현장은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에게 삶의 배움터, 쉼의 공간이기보다는 떠나고 싶은 곳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곳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발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이다. 이때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에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약 4~6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고 있으며, 2017년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49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청소년백서, 201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 정의를 개략적으로 정리해보면, '9-24세의 청소년 중에서, 국가에서 인정한 초·중등과정에 해당하는 정규학교에 3개월 이상 가지 않고 있는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의 권리 중에서 인간의 발달을 위해 학습과정의 중요성은 아동 생존과 발달 그리고 보호에 관련된 규정에서 제시된다(천정웅, 2011).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보호와 지도를 받으며 일종의 신분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학교 밖 청소년은 발달권과 사회적 안전망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단순히 학교를 떠남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친구 관계, 경제적 문제 등 주변의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다. 결국, 한 개인의 삶의 고통이 그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고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국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적 지원 제정과 학교 밖 청소년들만의 지원서비스를 위한 센터를 지자체마다 설립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가 다차원인 점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들은 다분야가 연대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문제점은 장승희(2017) 연구에 의하면 종사자 및 관련 기관들은 정보들의 공유를 원하지만, 협력체계의 문제점으로 인해 정보의 공유 어려움이 실재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가 정체성 문제(활동과 상담가로서의 갈등)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종사자의 소진 가능성이 커지고,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학교 밖 종사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할 전문가 사회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서비스의 체계화를 위해서는

자원수준과 서비스 지원체계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서비스제공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특화능력 역시 현장종사자와 청소년 분야 연구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개발해야 할 의무로 생각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에 맞는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전문성 발달 교육과 관련 정책의 발전도 청소년 지원서비스에서 주요 과제라 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황과 특성이 일반 청소년과 다른 점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개발과 향상방법의 탐색을 위한 연구는 청소년 지원서비스의 발달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과제이다. 종사자의 전문성에 관한 이론 연구는 전문성의 개념 정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문헌 탐색에서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 청소년 지도사 또는 청소년 상담사, 소년원 교사, 학교 컨설턴트 등의 역할, 정체성 관련 연구들은 확인되었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에 특화되고 종합적인 전문성을 제시하는 연구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외에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의 원칙에 대한 연구들에서 '전문성'을 연구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 연구들은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주로 다음 사항들 ① 업무처리 능력 정도 평가 ②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습득 여부 ③ 종사자의 숙련도 평가 ④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정도 ⑤ 교육과 훈련 참여 적극성 또는 기회 정도에 대해 기관 책임자, 대상자 또는 직무수행자가 평가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자가 보기에 이는 전문가가 갖출 요소별 수준을 경험자 만족 중심으로 조사한 것이지만 전문성의 세부 내용탐색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동향의 분석을 거쳐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 전문성의 구성요소와 같은 내용 탐색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란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상담사를 비롯하여 청소년시설, 청소년 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등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중심 질문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위해 현장에서의 특화된 전문성 내용 및 발달과정은 어떠한 것인가?'이다. 질적 연구에서 상세한 탐색을 위해서는 단일 개념에 초점을 두고 개방형의 중심 질문을 작성함이 유용하다는 권고(Creswell, 2011)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을 핵심으로 중심 질문을 구성하였다.

이 질문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방법 및 관련 정책발전을 위한 지혜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관련 기관 종사자들의 추천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의 경험 및 견해를

사례연구 방법으로 질적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문성 발달과정과 경험의 기능

전문성 발달의 개념과 특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전문성 발달에 대한 이론들의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유능성의 수준에 따라 각 단계를 거치는 연속적 발달 단계를 설정하는 모형 제시이다. 둘째, '성이나 수행' 중심이 아닌 개발 과정 자체에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의 관점이 있다.

1) '연속적 발달 관점'과 '개발과정의 관점'

연속적 발달 관점의 전문성 발달이론은 전문성이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전문성의 질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Dreyfus와 Dreyfus가 제시한 '기술획득의 5단계 모형'이 대표적인 전문성 발달 단계 모형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들은 전투기 조종사, 체스 선수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기반하여 전문성 발달 과정을 5단계로 구분하였다. 초보자(novice), 고급입문자(advanced beginner), 능숙자(competent performer), 숙련자(proficient performer), 전문가(expert)의 각 단계를 거치며 문제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5단계의 특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통해 전문성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한편, Alexander(2003)는 기존의 전문성 연구를 학문영역에서 나타나는 전문성 발달의 양상을 토대로 영역학습 모형(model of domain learning, MDL)을 제시하였다. 영역학습 모형은 지식, 전략적 처리, 흥미를 전문성 발달의 구성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전문성의 발달 과정을 적응(acclimation), 유능(competence), 숙련(proficiency)의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적응 단계에서 학습자는 단편적인 영역 지식과 주제 지식을 갖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정확한 정보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 관련 있는 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를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학습자는 영역특수적인 과제들을 대부분 새롭고 도전적인 것으로 여기며, 이를 위해 주로 표면수준 전략을 활용한다. 적응 단계에서 학습자는 개인적

흥미의 씨앗을 갖고 있지만, 이들의 관심을 유지하고 성과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상황적 흥미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응 단계에서 유능 단계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지식기반에 양적·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유능 단계에서는 영역 지식의 기초가 형성될 뿐 아니라 지식의 구조가 체계화된다. 또한, 유능한 학습자는 표면수준 처리 전략과 심층수준 처리 전략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과 전략의 변화는 학습자의 개인적 흥미를 증가시킴으로써, 상황적 흥미에 대한 의존을 낮추게 한다. 유능 단계에서 숙달 단계로의 전환은 어느 하나의 요소가 아닌 세 요소의 시너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상에서 언급한 ‘단계별 모형’이외에, 개발과정의 관점에서 전문성 발달을 조명하는 연구자들이 있다. 초보 수준에서 전문가 수준으로 성장, 발전하는 단계를 ‘여정(journey)’, ‘개발 과정’으로도 표현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여정의 관점으로 보며 전문성 과정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학자들은 Swanson(2001)과 Kuchinke(1997)이다. 특히 Kuchinke(1997)는 성과 및 전문가의 수행 중심으로 전문성을 정의하는 동향에 대해 비평하였다. 전문성을 결과 산출 중심이외에 어떻게 전문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성 개발 과정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과정의 관점을 수용하여, 전문가가 되어가는 여정 중심의 발달 탐색에 초점을 두었다.

2) 전문성 발달 핵심 요소로서의 ‘경험’의 기능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경험의 역할을 조명한 이상훈과 오현석의 연구(2016)에 의하면, 전문성의 발달에서 경험은 절차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고,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 상황에서는 경험의 깊이 외에 경험의 폭도 중요하다. 이 연구는 전문성 발달에 있어서 ‘경험’ 요소가 핵심적인 기능을 함(Dreyfus & Dreyfus, 1986; Benner, 1982; 오현석, 김정아, 2007)을 뒷받침 한다. 전문성 발달에서의 경험은 어떤 개념으로 정의될 것인가? 경험은 다양한 맥락에서 활용되는 매우 복잡한 개념이다. 경험은 사전적으로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본 것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능, 철학적으로는 객관적 대상에 대한 감각이나 지각 작용에 의하여 깨닫게 되는 내용’(국립국어원, 2015)이라고 폭넓게 정의된다. 그러나 전문성 연구에서 언급하는 경험의 개념은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직업경험이나 직무경험으로 한정된다(Benner, 1982). 즉,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 발달에서의 경험은 경력, 실천 등의 개념과 유사하게 활용되어 왔다.

전문성 발달과정에서 경험의 기능 중 하나는 경험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Norman과 Brooks와 Hamstra(2006)는 의료 전문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지식을 인과적 지식(causal knowledge), 분석적 지식(analytical knowledge), 경험적 지식(experiential knowledge)으로 구분하였다. 인과적 지식은 기본적인 의학적 메커니즘에 관한 서술적 지식이며, 분석적 지식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환자의 특징과 진단을 연결하는 형식적 관계에 관한 지식이다. 의료분야 전문가들은 인과적 지식과 분석적 지식을 활용하여 이론적 체계를 개인 내부에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형성된 체계를 벗어나는 다양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이 필수적이다. 경험적 지식은 경험으로부터 획득되는 이전의 경험들의 합으로서의 지식을 의미한다.

Dreyfus와 Dreyfus(1986), Benner(1982)와 같은 전문성 발달의 경험적 이론들이 경험의 역할로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지식의 맥락화 과정이다. 전문성의 발달 과정에서 인과적 지식, 분석적 지식, 경험적 지식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을 획득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를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의 맥락적 활용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천 현장 경험과 피드백 경험이 요구된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탈맥락적인 지식의 적용이 갖는 문제를 체험하게 된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을 통해 피드백을 얻게 됨으로써, 상황과 맥락에 따라 지식을 적용한다. 또한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 성찰하게 됨으로써 점차 지식의 맥락적 활용 능력을 축적하게 된다. 지식을 맥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함에 따라 형식적 지식, 규칙,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 고찰을 기반으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원 서비스 현장에서 장기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전문성 발달에 관여하는 '경험'의 기능에 대해 상세히 탐색해 본다.

2. 무형식 학습 이론 관점의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전문성 발달요건

전문성 발달 과정의 기존 연구들은 발달 과정을 선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전문성의 복잡한 특성과 다른 영역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Grenier & Kehrhahn, 2008; 배을규, 동미정, 이호진, 2011).

어떤 방법으로 개인의 전문성 형성과정과 관련 요인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인가? 전

문성이 학습의 영역임을 고려할 때, 전공학과를 졸업한 이후 전문성과 관련된 학습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이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이다. 무형식 학습은 직장 근무자들이 업무 관련 지식을 스스로 수행하는 학습으로 소개되었다. Marsick과 Watkins(1992)는 무형식 학습특징을 ‘경험에 의한 학습, 실천 지향적이며 주도성과 비판적인 성찰, 창의성을 통해 증진’으로 제시하였다. 직장인이 일터에서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는 과정은 ‘무형식의 학습 여정’으로 표현되며, 이는 암묵적 과정(traitic process)을 수반한다. 무형식 학습은 현장방문, 대상자와의 접촉, 실패 체험, 일터에서의 질문과 피드백 등의 일회성 사건을 통해 일어나고 축적 된다. 이러한 무형식학습 경험의 내용 탐색은 전문성 형성과정 및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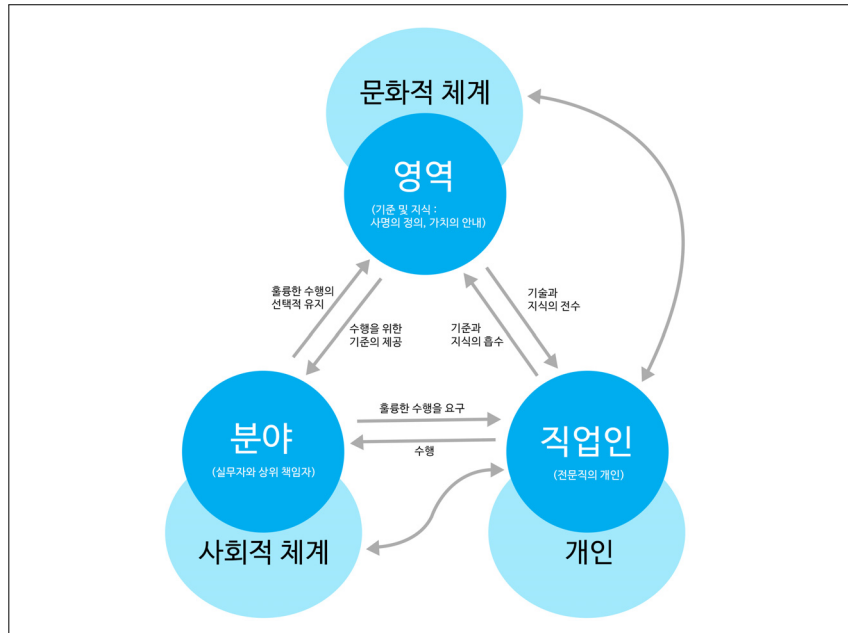
이에 근거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과 같은 제도적인 형식학습 지원뿐 아니라 개인학습 지원, 비공식모임, 멘토링, 슈퍼비전, 동료와의 상호작용 등의 무 형식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업무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무형식 학습 이론이 유용하지만, 아직 청소년 관련 현장에서 전문성과 연계한 연구 설계는 희박하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 대상으로 한 연구도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을 설명할 수 있는 학습의 중심현상에 무형식 학습 경험의 나타남 여부 및 무형식 학습 현상내용에 대해 확인해 본다.

3. ‘good work’ 이론 관점의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요건

‘Good Work’ 이론에서 제시하는 전문성 모델은 전문성을 직업인 개인 영역과 문화 영역 및 사회 영역과의 상호작용으로 가정한다. 이는 기존의 전문성 논의에서 전문성을 개인의 특성으로 규정하는 관점과는 다른 것이다. 사회적 기여 관점에서의 전문성을 소개하는 ‘Good Work’ 이론에서는 다음 세 가지 속성이 모두 관련된 직업수행을 전문성 모델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첫째, 우수한 기술을 수행하는 ‘유능성’ 및 둘째, 윤리적 관습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하는 ‘윤리성’, 셋째는 개인적으로 의미함을 인식하며 수행에 참여하는 ‘몰입’이다. 특히, 책임감에 따른 수행은 전문적 혹은 비전문적인 수준에서 수행할 것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Gardner et al., 2010). Good Work 연구에서는 직업인이 인식하는 사명 영역의 기준 및 사회의 요구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수행의 유형이 구분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문가

는 영역의 기준 및 사회의 요구를 고려하여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수행에 반영한다 (Gardner et al., 2010).

이를 더 발전시켜 Nakamura(2009)는 전문성의 모델이 창의성 모델과 유사함을 설명하면서 <그림 1>와 같이 더 구체적인 Good Work 모델을 제시한다.



<그림 1> Good Work 모델

이 모델에 의하면, 창의성이 발현되고 일의 성과가 탁월해지려면 먼저 전문성에 대한 정의가 사회적으로 합의된 속성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즉 전문성은 그 시대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모델이다. 사회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직무능력은 변화되는데, 한 직업인이 전문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그 변화에 따라 마음껏 창의성을 발현하는 시점이다(Nakamura, 2009).

이상의 내용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개념 발견에 적용한다면, 전문적인 종사자의 수행이란 유능성, 윤리성, 몰입을 발휘할 때의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종사자의 유능성은 실천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윤리성은 가치 지향적인 휴먼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필수적인 자질이다. 또한 몰입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동력이다. 유능성이 더욱 발휘되어야 할 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는 대부분 자기필요에 의해 찾아오기 보다는 타인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전문가를 찾아오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전문가를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체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숙한 태도를 갖기 힘들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 안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장기적인 관계형성을 맺는 기술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대상자들과의 지속적으로 관계형성을 어떻게 맺느냐가 전문성을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또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성장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종사자의 전문성 요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유능성은 몰입과 윤리성이 동반되어야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Good work 이론은 기존의 연구처럼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나 특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종사자의 능력이나 특성이 학교 밖 청소년 영역 및 분야와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가정하고 각각의 요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종사자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을 개인인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뿐만 아니라 직업 영역 및 분야의 차원으로 확장하여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Good Work 관점은 전문직업인이 가져야 할 관심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 윤리적 책임, 의무라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시켜 이해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전문성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Good Work 관점에서 제시한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가 실천현장에서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종사자로서의 개인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영역 및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의 요구와 개인의 사명이 일치할 때 전문성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유능성, 윤리성, 몰입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로서 전문가임에 대한 확인을 위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설정하였다. 첫째, 추천이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성에 대한 인

식과 개발 관심이 있는 동시에 전문가로 인정받는 종사자를 지명방법(nomination process)으로 모집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기관 팀장, 센터장, 동료 종사자들이 관찰한 이들 중에서 훌륭한 수행을 한 사례가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종사자라고 평가한 이들을 추천 받았다. 둘째, 10년 이상의 청소년 관련 종사 경력자를 참여자로 하였다. 10년 이상의 근무 기간을 참여 기본 조건으로 설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는 Ericsson과 Lehmann(1999)의 제시를 활용한 것이다. 이론을 참조하여 대상자를 선정함은 이론적 표본추출법(theoretical sampling)에 해당한다. 연구참여자의 인적 사항과 경력 배경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배경 사항

	이정연	김하나	박정우	김숙희	나현정
나이	33세	35세	45세	56세	49세
성별	여	여	남	여	여
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기혼
전공	청소년 교육상담 학사, 석사	청소년학 학사, 청소년 상담석사	신학 학사 청소년학 석사	교육학 학사 사회복지 석사	사회복지 학사, 석사, 박사
시작 시기	23세	23세	28세	35세	23세
총 경력	10년	12년	17년	21년	25년
근무기관	여자청소년 쉼터	학교밖 지원센터	학교밖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사단법인 좋은친구들	청소년 문화의집
근무기간	5년	3년	5년	8년	10년
자격증	청소년 지도사1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청소년 상담사2급	청소년 상담사1급	청소년 지도사1급 청소년 상담사2급	청소년 지도사1급	청소년 지도사1급 청소년 상담사1급
주 담당	상담 생활지도	상담 생활지도	청소년 활동 전반	청소년 활동 전반	청소년 활동 전반

*연구참여자 이름은 가명으로 함.

*시작 시기= 처음 사회복지기관에 입사한 나이 *총경력= 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 총 경력

*근무기간= 현재 근무하는 기관에서의 근무 총 경력

2. 연구 절차

자료 수집을 위하여 실시한 절차는 반 구조화된 심층 면담과 참여 관찰이었다. 이에 대한 상세 절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함께 자료 분석의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수행한 절차를 제시하였다.

1) 심층 면담

먼저 전문성에 관한 일반적 연구 및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헌을 개관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용 질문지를 작성하고, 핵심질문과 추가 질문으로 분류하였다. 핵심질문은 포괄적이며 중립적인 질문들로 구성하였다.

- 1) 청소년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게 된 계기는?
- 2) 어떤 과정을 거쳐 전문영역에서 성장했다고 여기나요?
- 3) 학교 밖 청소년 전문가이려면 어떤 행동과 태도, 지식이 필요할까요?
- 4)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종사자에게 어떤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까요?

2) 참여 관찰

질적 연구에서 참여관찰은 연구자가 직접 실천현장에서 오감을 통해 현장에서 분위기를 느끼며 생생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2004), 이용숙, 1989; 조용환, 1999; Creswell, 2015).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하거나 검정고시 반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직접적으로 그곳에서 근무하는 연구참여자들을 자연스럽게 관찰 할 수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자 그들의 환경에서 함께 있으며 그들의 행동, 태도, 언어를 관찰 하였다. 평상시 그들의 근무 태도를 자연스럽게 관찰 하면서 참여자들의 직무태도, 동료들과의 관계, 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그때그때 마다 떠오르는 느낌, 상황묘사들을 즉석메모(face sheet), 또는 현장노트(field note)를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분석 절차는 사례연구 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개별적 사례 기술과

분석 및 사례간 분석을 병행하였다. 사례들 간의 분석은 사례별에서 공통주제를 도출하고, 각 주제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개념화 코딩, 범주화 코딩, 구조화 코딩의 순서를 거쳤다. 먼저 연구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전사내용을 반복하여 읽었다. 개념화 코딩은 자료에서 개념을 추출하여 추출된 개념에 코드를 부여하는 단계의 코딩이다. 개념화 코딩에서는 구나 절보다는 긴 주제문의 형태로 코드를 부여하는 주제화하기(Saldaria, 2009; 오영범, 이현철, 정상원, 2016 재인용), 연구참여자의 언어를 사용해 코드 부여하는 in vivo 코딩(Strauss, 1987; 오영범 외 재인용), 연구자의 가치, 태도, 신념을 살피고 이를 나타내는 코드 부여하는 가치 코딩(Saldaria, 2009; 오영범 외 재인용), 탐구주제를 드러내는 어절을 통해 코드를 부여하는 구조적 코딩(MacQueen, 2008; 오영범 외 재인용)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개념화 코딩에서 도출된 각 코드들을 중심으로 범주를 형성하는 범주화 코딩을 하였다. 범주화 코딩은 묶여진 코드, 범주들을 하위에 포함할 수 있는 ‘메타 코드’(상위범주)를 찾는 패턴 코딩(pattern cod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다른 범주들을 연결하는 전략인 초점 코딩(focus coding)을 사용하여 구조화 코딩을 하여 의미구조를 형성하였다.

Dul과 Hak(2008)은 사례연구를 실생활에서 발생한 한 개의 사례 또는 소수 사례를 연구하는 것으로서, 사례에서 나온 자료를 정성적 연구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실천지향(practice-oriented)연구로서의 사례연구 기능을 제시하였다. 실천 지향연구에서 제공하려는 지식은 종사자가 자기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 가능한 지식-문제 해결이나 문제의 명확한 규명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실천지향 연구의 목표는 이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종사자들이 현장에 적용가능한 실제적 지식 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특화된 전문성 구성요소에 대한 탐색을 위해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활용하거나 실천한 사고방식·태도·행동을 나타내는 전사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종사자들에게 교육이 가능하고 전수할 수 있는 내용의 발견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외에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에서 학습 관련 중심 현상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색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례들에서 분석하였다. 학습에 관여한 요소들과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IV.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 여정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들이 전문성을 발달시켜나가는 ‘여정’을 탐색해 본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력과 몰입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명이 특징적인 종사자들이 어떤 여정을 거쳐 전문성의 결실을 향하는 것인가?

첫째, ‘고민의 여정’을 거치는 것이었다. 고민의 여정이란 대상자 소속 사회의 내·외적 환경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여 생성되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갖고, 대처해 가며 자아가 확장되는 과정의 특징을 명명한 것이다. 고민의 과정은 전문성 구성요소로 탐색되었던 사고방식·태도·행동들이 형성되거나 실천되는 맥락이었다. 둘째, 고민에 대한 대처, 학교 밖 청소년을 향한 몰입, 사명의 장기적 실천은 대상을 위해 필요한 것을 창출해 내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발전한 것이었다. 이를 ‘관계 맺기 도구의 만듦과 키움’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자신의 장점을 살려 대상자를 돕는 지원 서비스 실천 방법 개발> 과정에서 전문성과 관련된 됴됨이가 이루어져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자신의 역할, 사명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치며 연구참여자들은 지원 서비스 실천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심화학습내용을 획득하는 학습, 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자아의 확장을 통해 동반성장으로

이 연구에서 종사 21년차 김숙희¹⁾는 ‘내 자녀의 범위를 확장한 가족 의식’이란 특징적인 종사 참여의 동기가 있었다. 연구참여자 김숙희의 빈곤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열성, 그녀가 실천한 전문적 노력은 어떤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아 생성되고 장기간 발달하였을까? 김숙희는 그 이유를 자신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경험에 대한 해석과 연관시켰다. 가난과 딸이란 성별로 인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속상함, 공부의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속상함, 자기 힘으로 청년기, 대학 공부의 기회를 일구어내야 했던 버거움의 체험이 빈곤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했다는 것이었다. 즉 ‘내가 고생했고, 내가 배우기 어려웠으니, 내 자식들은 이렇게 살게 하지 않을 것’이란 부모세대 의 열심을 품게 된 것이었다. 한편, 김숙희는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을

1) 2005년 청소년 문화의 집 -> ‘***멘토’라는 멘토 프로그램 시작하여 2014년까지 운영함 -> **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및 ***친구들 법인 사무총장(현재)

‘청소년과 자신의 동반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 표현에서 연구자는 ‘주었음’ 보다 ‘함께 성장했음’으로 보는 김숙희의 모습을 엿보며, 타인 지향적인 그녀의 참여 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 기저에는 빈곤아동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균등한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생각을 했죠... 제가 빈곤아동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어요(중략). 학교를 다닌 중에 중학교때 돈이 없어서 고등학교를 못가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어요.(중략) 국립현장을 외어야 빵을 주는데 외우지 못해서 빵을 못 먹으면 너무 속상한거야... 빈곤 때문에 교육의 균등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분노가 있었죠. (중략) 아버지가 쓰러지신 다음에 저도 여자라는 이유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힘으로 대학을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더욱 이런 것에 관심이 더 커졌죠. 그러면서 결혼을 하고 있고 살다가 다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지역에서 키우자라고 생각했어요. 지역운동을 한 거죠. **멘토라는 이름으로 멘토프로그램을 한거죠.(중략) 그들과(멘토프로그램 참여자들과) 내가 함께 동반 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을 발굴해 냈다는것에 자부심이 있어요. 학교 밖.. 이 아이들도 교육의 기회가 다 주어져야 하는데...(참여자 김숙희).

위와 같은 김숙희의 자기 인생 해석 관점을 연구자의 관점에서 다시 들여다보면, 두 가지 특징적인 발달 양상이 보였다. 첫째 표면적으로 먼저 보인 것은 고통을 건전한 방향의 승화로 대처하는 모습이다. 이는 가난의 경험에서 형성된 불편감과 분노에 대해 사회적 의미와 근본적 해결방법을 탐색하는 사고방식에서 키워진 것일 수도 있다. 김숙희는 자신의 불편한 과거시절을 반복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자신이 경험하고 싶었으나 갖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 주려는 타인지향적인 동기를 형성했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강화해 왔던 것이었다.

둘째, ‘승화’라는 표면적 해석보다 심층적 해석을 시도하면, <자아의 확장>에 성공한 사례라고 보여 진다. ‘자아의 확장’이란 용어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높이고 타인이나 세계에 대한 ‘주의의 폭을 넓히며’, 내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선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의미한다(송순주, 2012). 김숙희는 자신의 관심을 자신의 고통과 자전적 기억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주의의 폭을 넓힘’이란 사고방식을 형성하고, 이를 이타적 행동으로 연결함으로써 자아를 확장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의의 폭을 넓히는 것>은 주변사람들의 환경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인식하게 되며

그 주변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흐름을 더 잘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Kok, Catalino, & Fredrickson, 권석만 외 역, 2011). 김숙희는 자신이 경험하고 싶었던 것을 타인을 위해 주려 할 때, 자신의 관점·방식이 아닌 대상의 관점에서 보기 위해 노력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일반적인 승화보다 더 발달된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김숙희의 자전적 언급을 되돌아보면, “빈곤 때문에 교육의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 “빈곤 아이들을 담을 그릇이 없었다.” 등의 표현에서, 김숙희의 시야는 <자신의 가난한 가정>에서 <가난의 원인인 사회>로 넓혀져 간 것으로 보인다. 즉 개인의 경험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 사회 공동체, 사회적 맥락으로 주의의 폭을 넓히는 사고방식을 형성해 온 것이었다. 이러한 확장된 주의에 기반 하여, 다른 이들보다 더 민감하게 빈곤 청소년들의 문화와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의 맥락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파악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함양해 온 것으로 보였다. 더불어 자원 봉사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지역의 빈곤 아동들의 교육권에 대한 생각의 폭을 넓힘으로써, 몰입하며 나아갔다. 대상을 위한 김숙희의 지속적인 헌신을 ‘몰입’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의 폭을 넓힘으로써 김숙희의 몰입은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몰입’은 지역운동이라는 실제적인 행동과 멘토 프로그램의 창출 등의 창의적 실천과 성공 경험을 매개로 하여, 장기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 기술한 <주의의 폭을 넓힘>과 <몰입>, <창의적 실천>을 이 연구에서는 ‘자아의 확장’이란 명칭으로 불러 본다. 김숙희의 경우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가 자아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김숙희의 표현을 빌리면 자아의 확장은 ‘동반성장’의 경로라 할 수 있다. 어머니에서 학교 밖 빈곤 청소년을 위해 사고하고 행동하는 전문가로 발달한 김숙희의 사례에서, 자아의 확장은 전문성 발달의 주요 경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2. 기관과 청소년의 도움을 받은 종사자 자아의 확장

청소년 관련 종사 25년차의 연구참여자 나현정²⁾은 20대에 사회복지학 학사 전공과 실습과 복지관 사역을 거쳐, 30대에 지역아동센터 기능의 문화의 집 사역에 진입하였을 때, 청소년을 보는 관점의 전환, ‘패러다임 전환’이 자신에게 발생했다고 이야기 하였다. 자신이 ‘성인 중심’의 시각으로 청소년을 대해 왔음을 통찰하고, ‘청소년의 입장에서’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즉 성인이 정한 틀에서

2) ***교정시설(1993~1994)- **복지관(~2004)- ***청소년문화의집 (2005~2016)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를 규정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고양식을 갖게 된 것이다. 참여자는 ‘학교부적응’을 문제라고 규정하는 것은 성인 중심의 관점에서 파생한 것이란 주장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한 명의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삶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철학이 내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 전환을 유발하고 강화시킨 것은 소속 기관의 공동지성 이었다.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조직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각성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방향의 기틀로 배어들어져서 청소년들을 향한 더 나은 행동으로 자라났다. 따라서 연구자는 나현정의 이 경험을 기관의 사명에 접촉하여 본인의 가치관이 수정되어 전문성 발달의 기초가 된 사례로 해석하였다. 참여자에게 일어난 새로운 사고 양식의 형성을 연구자는 ‘자아의 확장’의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 청소년 수련시설이어서 일단 저에게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죠. 다들 경험하는 것이긴 한데, 특히 청소년들은 우리가 정해놓은 틀에 있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야 성인인 우리가 다루기가 편하다는 거죠.(중략). 그러다가 수련 시설로 들어가서 청소년이 미래의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현재 한명의 시민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한명의 시민이 살아가는 이곳, 학교든 지역 사회든 그 개인이 살아가는 곳에서 자기식대로 적응하면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말고... (중략) 문화의 집에 와서는 그 관점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점이었어요. (중략) 그전에는 우리, 성인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었다면 이 기관에 와서는 아이들 스스로 만드는 프로그램, 아이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도록 하는 패러다임... 의 전환...(중략)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하는 조직, 기관이 참 중요하더라고요(참여자 나현정).

나현정은 자신의 종사 여정 중에서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만남 에피소드를 더 이야기 하였다. 삶의 맥락에 대해 숙고하는 습관이 있는 참여자이기에 자신의 경험 이야기에도 일목요연함이 있었다. 현재까지 전체 종사 기간 중 초·중반에 해당하는 시기에서의 경험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밖 아동이 된 사례를 위해 제 2의 지존파가 되지 않도록 방과후 프로그램, 그룹홈 등을 만들며 성장과정에서 놓치지 않고 따라가며, 문제행동이 지속될 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는 성장 동반자 역할을 수행했다. 그 초등 아동이 20대 후반이 되어 찾아와 감사인사를 할 정도로 성실히 수행했다. 그런데 그 친구와 옛날이야기를 하다가 당시에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경험을 했다. 짜파게티를 만들어 주고, 방과 후 프로그램, 그룹홈 등을 진행하던

때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학교 밖 아동 청소년 숨은 문화와 얹어 숨겨진 그들의 경험들을 몰랐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어도 모름을 체감한 것이었다. 성장하여 다시 찾아와 준 그 학교 밖 아동은 이제 종사자에게 선생이 되어 주었다. ‘들음으로’ 인해 종사자는 그들의 ‘생활배경,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된 것이었다. 이 경험에서 나현정에게 각인된 것은 자신의 주의와 인식에 대해 단정하지 않는 것, 청소년에 대한 얹이 넓어져도 여전히 모르는 청소년의 세계가 있음에 주의를 열고, 기울이는 태도이었다. 이 에피소드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워야 종사자다운 자아가 확장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여졌다.

그리고 그 친구랑(춘의복지관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돌본 청소년이 20대 후반이 되어 찾아옴) 옛날 이야기하면서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빈곤지역의 아이들 위계가 장난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때 동네 형들한테 엄청 맞은거예요. 나도 몰랐던 문화였구나 싶었어요. 폭력문화가 대물림 되는거구나.. 나중에 알았죠. 기질이 선하다고 생각했던 아이들도 나중에 들어보니 엄청난 폭력을 행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애들 말로. 그 문화에서 어쩔 수없이 폭력을 배우게 되는거죠. (중략)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신감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만큼 내가 모르는 세계가 이렇게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참여자 나현정).

참여자 나현정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 과정에서 계속 품고 풀어낸 과제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주제이었다. 이러한 고민은 참여자가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틀이 성인중심에서 청소년 입장의 관점으로 전환되는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연구참여자 나현정의 경우는 고민을 하는 행위 자체를 즐거워하였으며 고민의 끝에는 문제해결 혹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 여기며 그 과정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Good Work 이론에서는 유능성, 윤리성, 몰입이 발현될 때 전문성이 드러난다고 했다. 바로 연구참여자 나현정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고민’은 본인의 능력의 한계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사명에 맞게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 안에 완전히 몰입이 되었을 때 긍정적인 힘이 된다.

물론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하는가...고민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자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도해야하지만 적어도 내 틀에 맞추어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거죠...(중략) 그리고 저도 청소년 쪽으로 와서 청소년지도사와 사회복지사 사이에서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참여자 나현정).

복지관에서 만난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나중에 커서 그래도 복지관이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우리들의 직업적 소명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 고민이에요. 이 또한 내가 경험을 통해서, 또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거니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한거죠(참여자 나현정).

또한 이 고민은 <타산지석의 사고방식 응용>이라는 전략으로도 활용되었다. 연구참여자 나현정은 타인의 고민 정보를 자신의 고민으로 응용하며, 남에게서 자신에게 필요한 고민 사항을 도출하는 ‘타산지석’의 사고방식도 활용하였다. 이는 자신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사역방향에 대한 고민에 대처하는 자원 역할도 하였다.

그분(선배)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내가 상담가로써 사회복지역할을 하는게 좋은가, 아니면 사회복지사로써 상담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좋은 선배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고민을 들으면서 아, 저런 고민을 할 수 있겠구나. 특히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많은 도움이 됐죠. 내공이 다르구나 싶었어요(참여자 나현정).

20년 이상의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심층면담 중 반복되는 특징 어휘 중에 두드러진 것은 ‘고민’이었다. 청소년 관련 종사기간이 오래 될수록 ‘고민’이란 어휘의 사용이 빈번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고민’은 대상자를 향한 진심과 함께 관계 형성 및 지원 서비스 전달 방법의 고안을 위한 긴 여정 속에서 사고의 틀이 된 태도로 해석되었다.

3. 종사자 역할의 고민에 대처하는 사고의 전환

청소년 돕기를 위해 상담공부에 정성을 들였던 참여자 박정우³⁾는 자신의 생각, 행동의 주의력과 선택 범위의 확장 노력에서도 상담이 주요 영역이었다. 박정우는 ‘상담사인가? 청소년지도사인가?’에 대한 고민 경험 및 해결하는 방향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직업 정체성에 대한 고민’으로 명명해 본다.

3) **시 청소년 상담센터 - **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긴급구조상담원)(2009~2011)- 두드림(2013~2014)-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2014~현재)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가 두드림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내가 상담사야? 난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드림도 강의도 하지만, 그 아이들의 사례관리, 체험이나 취업연계를 같이 합니다. 사회복지 체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담적인 부분에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상담도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1년에 거의 17개정도의 기관에 들어가서 강의를 합니다. 1년에 거의 15주~16주는 강의를 한다고 보면 되는데 강의를 하고 남은 시간에 아이들을 다시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참여자 박정우).

현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장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이 이 모든 직무의 혼합된 형태로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서로 다른 형태의 직무를 맡고 있으면서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겹도는 직무 역할로 혼돈스러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사회복지사와 상담 또는 청소년지도사 역할 간의 갈등을 경험한다는 공통적인 언급을 하였다. 김숙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부에서 청소년상담사들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협조적이지 않은 배타적인 태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다.

보통 상담원과 사회복지사와의 관계가 참 애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상담사와 복지사와 벽이 있어요. 어느 곳이나 비슷해요. 상담사분들은 수퍼비전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가 더욱 전문가이다. 라고 생각해요(참여자 김숙희).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들은 상담과 활동과 생활지도를 동시에 한 명의 종사자가 병행함에 제한이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들에게 한 가지 해법이 될 수도 있는 제안이 연구참여자 박정우에게서 나왔다. 이 참여자에게는 대상의 필요에 맞춘 융통성이 자신의 직업정체성보다 우선한다는 사고방식이 있었다. 이는 자신의 직업 정체성에 대한 고민에 빠지지 말고, 사례마다 자신의 역할을 대상의 필요에 맞추어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함을 제언하는 목소리이었다.

연구자: 어떤 게 선생님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인 것 같나요?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참여자: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복지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복지적인 부분들을 지원해 주면서 그 아이하고 라포를 형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분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상담에 대한 부분을 그 아이와 진행하고 있다면, 저는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제가 해 줄 수 있는 복지부분에서 아이가 필요한 것들을 상담사와 의논해서 지원해줍니다. 반면에 상담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면 그 아이와 상담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그 아

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중략)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선생님의로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상담을 깊이 있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참여자 박정우).

위와 같이 현장에서 직업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겪는 종사자들에게 이 연구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전문성 발달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항에 대처할 자원이 될 것을 기대한다.

4. 직업정체성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청소년상담과 청소년활동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견해, 한 종사자가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함 보다, 역할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 견해이었다. 즉 구조화된 상담은 생활지도를 하는 지도사가 병행할 수 없다. 외부 상담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상담을 하고 싶는데 이미 학생이 다른 선생님과 라포가 형성되어 있으니 내가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여기 와서 상담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안계세요. 함께 공감을 나눌 분이 없었죠. 이게 문제다라고 느낀 것은 팀장님과 저 정도? 다른 분들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활동도 물론 중요한데... 상담이 급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기 와서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저의 역할에 대해서... 그니까 나의 전문성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 라고 느꼈던거죠(참여자 김하나).

대부분의 청소년 분야 종사자들은 활동에 초점을 둔 청소년지도사 혹은 상담에 초점을 둔 청소년상담사 사이에서 역할 갈등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왜 유발되는 것일까? 상담사인가 지도사인가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의 유발 배경에는 대상자에게 필요한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유능감과 근무환경의 질이란 요소도 있었다. 분업과 과다업무로 인해 대상에 대한 도움 대화의 깊이가 얕다고 느껴질 때, 청소년지도사는 자신의 직무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느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더불어 근무환경의 개선의 필요성은 비교적 공통적인 견해로 제시되었다. 상담에 비중을 두는 종사자에게 있어서 업무의 과다는 상담에서 필수적인 능력인 알아차림 능력 등을 저해 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역할을 활동수행하는 청소년동반자를 대상으로 알아차림의 방해 요소를 탐색한 홍혜숙과 왕은자(2016)에 의하면, 불편한 환경과 같은 상담외적 요인이 알아차림 능력 발휘에 필요한 평정심과 대상에 대한 수용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신체적인 피곤이나 스트레스, 심리적 소진에 기인하여 알아차림을 방해받고 있었다. ‘돌봄’의 능력의 저하와 상승은 자아상과 연관된다. 돌봄 능력이 약화되면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는 무력감이나 부정적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하나는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5. 조직 내 환경자원으로 고민하며 성장하는 여정

30대이며 종사경력 10년차인 참여자 이정연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에서 조직 내의 환경에 대한 언급을 주로 하였다. 특히 상사와 이야기 할 수 있는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상사와의 관계에 대해 민감한 것은 업무의 효율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조직 내의 관계에서 이정연은 자신이 “모르는 범위들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고민도 되고, 항상 배워가야 하는 상황”을 거치며 종사 노력을 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정연의 배워가는 고민을 자아의 확장 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저랑 너무나 비슷한 상황에 있는 선생님을 바로 후임으로 만났는데 정말 이해가 돼요. 상사와의 관계에서 무너지고, 안 나오고 싶고, 죽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죠. 저도 그때 어느 정도 까지었나 하면,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번개를 맞으면 이런 느낌일까 싶을 정도로 심장이 아프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한 시간쯤 앉아서 쉬다 가기도 했어요. 또 뒤에서 팀장님이 걸어가는 구두 소리가 비슷하게 들리기만 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팀장이 되고 나니까 그분의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참여자 이정연).

참여자 이정연의 고민은 조직 내의 대인관계 뿐 아니라 근무환경과도 연관이 있었다. 조직 환경의 고민은 알려진 사항이다.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사자들의 고용의 안정성이나 급여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이직률이 높이 나타났음으로 보고했다. 또한 평균 종사자 두 명의 인원으로 2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에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임금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처우 개선의 열악함은 청소년 사업

의 지속성을 끊게 할 위험이 있다. 청소년들에게 제일 중요한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열악한 처우 개선과 직무환경으로 인하여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지역의 특성을 알아가고 그 곳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화를 익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을 펼쳐야 하지만 현재의 열악한 외적 자원을 가지고서는 좋은 질의 지원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종사자의 잦은 교체로 서비스의 안정성이 없으며 그 지역에 맞는 서비스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전달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바로 대상자에게 손해가 유발된다.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어려워지고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야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대상자를 향해 다가감을 포기하지 않고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이유는 전문성 발달의 여정에서 배워야 할 내용일 것으로 생각된다.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보수)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쉼터는 다른 곳에 비해서 보수가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야간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는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고 있어요. 많이 열악하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련관에서도 특히 상담복지센터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이전에 계시던 팀장님은 꿈드림과 여기 시설들을 확충하겠다는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 팀장님이 바뀌시면서 또 방향이 바뀌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특히 복지 쪽은 공통된 선에 맞춰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담선생님들은 상담하시고 퇴근하면 그만이지만 저희는 이 일이 삶과 연결이 되니까요(참여자 이정연).

가장 타인지향적인 동기를 보인 ‘자녀들을 함께 잘 키우기’ 가치관을 가진 김숙희는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을 발휘하는 동력을 사용한 것이 자아의 확장을 통해 동반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이 뚜렷해 보였다. 한편, 다른 연구참여자들보다 더 ‘자의식(自意識)’, 즉 종사자의 관심 방향이 대상자보다 자신에게 더 깊이 몰입되는 양상을 강하게 보인 이정연은 상대적으로 자아의 확장고민 방향에서도 대상자 자체를 향한 것 보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 환경자원으로 고민하고, 자기 직업 정체성을 확인하며 성장하는 여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분석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은, 자아의 확장 특색에서 볼 때, 종사기간이 짧을수록 직업정체성 갈등 대처 노력의 비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연구참여자들은 이에 대한 대처에 성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인 지원 활동에 노력하는 양상이 더 뚜렷하였다.

V. 결론

이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전문성 발달 여정의 특징을 발견해 냈다. <표 2>를 통해 위의 결과를 정리해보았다.

<표 2>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의 전문성 발달 여정의 핵심주제

핵심 주제	하위주제	의미 있는 개념
자아의 확장을 통해 동반성장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녀의 범위를 확장한 가족의식 - 고통을 건전한 방향의 승화로 대처하는 모습 - 주의의 폭을 넓히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었음' 보다 '함께 성장했음'으로 보는 김숙희의 모습을 엿보며, 타인 지향적인 그녀의 참여 뿌리 - 이타적 행동으로 연결하여 자아의 확장을 이룸
기관과 청소년의 도움을 받은 종사자 자아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보는 관점의 전환 - '들음으로'인해 종사자들은 청소년들의 생활배경, 문화를 더 깊이 알게 됨 -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한 깨달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중심'에서 '청소년의 입장'으로의 전환 - 사고의 전환유발은 공동지성에 있었음 - '고민'은 청소년을 향한 진심과 관계 형성 및 지원 서비스 전달 방법에 대한 고안을 위한 태도
종사자 역할의 고민에 대처하는 사고의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에서의 역할에 대한 고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사와 상담 또는 청소년지도사 역할 간의 갈등 - 한명의 종사자가 상담과 활동, 생활지도를 동시에 하기에 제한이 있음을 모두 언급함 - 직업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전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자원이 됨
직업정체성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화된 상담은 외부 상담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필요한 역할 수행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유능감, 근무환경의 질에 대한 문제점
조직 내 환경자원으로 고민하며 성장하는 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내의 환경에 대한 고민과 성장의 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사와의 관계는 업무의 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종사자들의 고용의 안정성, 급여의 적절성에 문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이 경험한 전문성 발달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역량개발 방법을 발견함에 있어 의미가 있다. 개인 차원의 전문성 교육방법에서는 종사자의 사고방식 개발과 정동 보호 및 개발을 제안한다. 조직 차원의 전문성으로는 협력 전문성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교육방법을 제안한다. 학교 밖 청소년 종사자의 전문성은 개인적 차원의 능력을 개발함에서 뛰어넘어 소속한 조직에서 형성되어 있는 '공동지성'의 영향을 받아 청소년을 보는

인식이 전환되고 전문성이 발전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화된 지식과 기술과 태도는 다음 단계로서의 개개인의 전문성을 한 단계 향상 시킨다.

이 연구는 종사자의 전문적인 사고·태도·행동이 체득 되어간 '변화의 여정' 특징 및 관련 경험에 담긴 의미 발견을 기술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 사례별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장 전문가 역량개발을 위한 학습의 심화를 가능하게 한 요소는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어 탐색하였다. 종사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대처 방식,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지원에 대한 내용 탐색을 함께 포함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을 지원할 방안 수립의 시사점을 내포한 전문성 발달과정의 조망을 시도한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방안들은 앞으로 청소년활동 분야의 특화된 교육과정을 만듦에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실천할 적용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처음 청소년활동 기관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현장실습의 체계성 구축과 초기 신입 종사자의 때에 동기부여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과 사제시스템을 통한 세밀한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심층면담에서 모두 동일하게 자신들이 종사를 처음 시작한 시점에 대한 기억을 또렷하게 갖고 있었다. 이는 종사 초기 시점이 전문가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둘째, 청소년 활동 종사자들의 사고방식 개발을 위한 공감력 교육과 직업윤리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한 전문가에게 대상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어야, 몰입을 경험하게 되며 전문가로서의 사명과 신뢰가 쌓이면서 단단한 전문가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청소년 활동 종사자들의 자기 보호를 위한 소진 대처, 정동 보호 및 개발에 대한 교육방법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 청소년 지원 서비스 분야의 이직율이 높은 것은 결국 청소년들의 피해로 이어지며 인적자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차원에서 그들의 정서노동에 대한 보상과 사례별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구성원들 모두의 수퍼비전 시스템 도입과 사제시스템을 통한 조직 내의 촘촘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한 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조직차원의 전문성향상 교육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한 조직 안에서 조직의 비전을 다 같이 품고 같은 목적을 향해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같은 조직 안에서 서로 필요한 정보교환의 원활함을 기본으로 공동지성에 대한 인지를 가지고 함께 학습하는 조

직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 대 기관의 네트워크 역량을 키워줌으로써 더 많은 사례의 문제를 더 큰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기원 (2014).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할 통합·조정기관 신설 필요하다 : 사후대처보다 사전예방책 강구 우선… 학교-청소년지원기관 네트워크 중요”. 『복지저널』71.
- 김진화 (2001). “청소년지도사의 직업적 전문성과 영향요인”. 『청소년학 연구』8(2):25—59.
- 박명숙 (2008).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검토”. 『사회과학연구』24(2):43-60.
- 배을규·동미정·이호진 (2011). “전문성 연구 문헌의 비판적 고찰: 성과, 한계, 그리고 HRD 함의”. 『인력개발연구』13(1):1-26.
- 백혜정·송미경·신정민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1-310.
- 오영범·이현철·정상원 (2016). 『질적자료분석』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오현석·김정아 (2007). “전문성 연구의 주요 쟁점과 전망”. 『기업교육과 인재연구』9(1):143-168.
- 오현석·성은모·배진현·성문주 (2009). “최고 수준 전문가와 보통 수준 전문가의 특성 비교 분석”. 『아시아교육연구』10(4):105-135.
- 이상훈·오현석 (2016). “전문성 발달에서 경험의 역할과 쟁점”. 『아시아교육연구』17(3):461-489.
- 이성엽 (2009). “무형식 학습의 방법에 대한 사례연구”. 『HRD연구』11(1):1-51.
- 장승희 (2017). “가출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신념과 노력 약화 요인 및 대처 방법 탐색”. 『청소년보호연구』30(1):147-188.
- 천정웅 (2011). “한국청소년정책의 발전특성 연구”. 『청소년학연구』18(12):513-534.
- 홍혜숙·왕은자 (2016). “청소년동반자가 지각한 상담과정 알아차림 방해요소 연구”. 『청소년상담연구』24(2):365-385.
- Alexander, P. A. (2003). The development of expertise: The journey from acclimation to proficiency. Educational Researcher, 32(8): 10-14.
- Benner, P. (1982). From novice to expert. American Journal of Nursing, 402-407.

-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2015). *질적 연구방법론-다섯가지접근(3판)*: 학지사.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최인수 옮김(2005). *몰입 FLOW :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한울림.
- Dreyfus, H. L., Dreyfus, S. E., & Athonasiou, T. (1986). Five steps from novice to expert. *Mind over machine*, 16-51.
- Dul, J., & Hak, T. (2008). *Case Study Methodology in Business Research*. 안동윤, 이희수 공역(2017). *직접해보는 사례연구: 박영스토리*.
- Ericsson, K. A., & Lehmann, A. C. (1999). Expertise. *Encyclopedia of Creativity*, 1:695-707.
- Gardner, H., Csikszentmihalyi, M., & Damon, W. (2001). Good work: When excellence and ethics meet. 문용린 역(2003). *Good Work: 생각의 나무*.
- Gardner, H. (Ed.). (2007). *Responsibility at work*. San Francisco: Jossey-Bass.
- Gardner H. et al. (2010). *Good Work: Theory and Practice*. from <http://www.goodworkproject.org>
- Kok, B. E., Catalino, L. I., & Fredrickson, B. L.(2008), *Positive Psychology: Exploring the Best in People, Four Volumes*, Lopez, S. H.(Eds.), 권석만의 역(2011),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Kuchinke, K. P. (1997). Employee expertise: The status of the theory and the literature. *Performance improvement quarterly*, 10(4):72-86.
- Nakamura, J. (2009). *Good work*. Positive psychology diploma program, Universidad Iberoamericana, Mexico City.
- Norman, G., Eva, K., Brooks, L., & Hamstra, S. (2006). Expertise in medicine and surgery. *The Cambridge handbook of expertise and expert performance*, 339-353.
- Swanson, R. A. (2001).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its underlying theory.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4(3):299-312.
- 교육부 (1997). “학교 중도탈락자 예방 종합 대책”. 『*교육월보*』181:53-61.
- 국립국어원 (2015). 『*표준국어 대사전*』서울: 국립국어원.
- 여성가족부 (2017). 『*2017 청소년백서*』서울: 여성가족부.

Abstract

Exploring professional development process of out-of-school youth workers

Chang Seung-hee*

This study explored the ways of thinking, attitude, behavior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social worker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10 years to support out-of-school you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how to develop the professionalism of out-of-school youth workers. There were three participants, one male with over 10 years of youth welfare experience and two females with over 20 years.

The result of the study was to explore what components of expertise developed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which factors. Participants in the study showed a pattern of expanding their ego as they constantly had a sense of problems created in the face of changes and challenges in society's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The core themes shown in this study are ① through self-expansion to shared growth ② the expansion of the self-self of workers with help from organizations and youth ③ change of thinking to cope with the troubles of the role of workers ④ efforts to resolve the conflict of job identity ⑤ organizational environment It appeared as a journey of agonizing and growing within. The process of self-development of youth activities outside of school by utilizing the strengths of the workers themselves, i.e., creativity to create what is necessary for the target was the basis for coping with troubles, immersion toward youth outside of school, and the driving force for long-term implementation of the mission.

Finally, a summary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opinions on the out-of-school youth worker specialization and their relationship-forming

*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Jangan University.

한국청소년활동연구 제6권 제4호(통권 제15호)

attitude characteristics are presented under the theme of "professional virtualization made in relation".

Keywords : youth workers, professional development

투고일 : 2020. 11. 28. 심사일 : 2020. 12. 20. 게재확정일 : 2020. 12. 24.